

배포

2026. 5. 27.(수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DL이앤씨·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

- 업무협약 기반 증산4 도심복합사업 후속 절차 본격 추진..’28년 착공 목표
- 지하 6층, 지상 42층 3,509호 대규모 주택공급 기대..우수 입지여건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‘DL이앤씨·삼성물산 컨소시엄’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.
 - 증산4구역(은평구 증산동 205-33 일원)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, 반흥산 등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총 3,509호(지하 6층, 지상 42층) 공급이 예정돼 있다.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‘DL이앤씨·삼성물산 컨소시엄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.
 -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(DL이앤씨·삼성물산 컨소시엄)는 ‘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.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,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.
-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(약 8천호 규모)*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.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(551호)를 비롯해,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.
 - * 6곳 : 쌍문역동측, 방학역, 연신내역, 쌍문역서측, 신길2 및 증산4
-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“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,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수도권정비사업	책임자	팀 장	황인호	(02-6400-5494)
	특별본부	담당자	차 장	권순우	(02-6400-5495)